

“농가 고통 가중... 농협 역할은 미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질책 쏟아져 서삼석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소극 자세” 비판 문금주 “정부 눈치 보느라 농가 이익 대변 못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개 기관 업무보고에서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6일 열린 농협 중앙회 업무보고에서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와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그러나 최근 인건비·물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도 정작 농협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절박한 농업인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발의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농민들은 언제나 농민을 위해 목소리를 크게 대변해 줄 농협중앙회장을 원하며 농림축산식품보다 농협에 대해 희망을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이 농어촌 상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 의원은 농어촌 상생을 위한 정책과 관련, “지자체와 지역조합 간 상생과 협치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하지는 취지로 마련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일명 협치모델법) 제정안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추진 상황은 미흡하다”며 “신인 농협 회장의 100대 공약 어디에도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강화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농협의 부실한 부동산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농협이 보유한 부동산은 약 8조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예컨대 강남의 200억원 부지를 20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중요 부지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협중앙회가 부동산 자

산을 각 계열사에 맡기지 말고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상생기금 활용 또는 농협 조합원 자녀를 위한 숙소 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 범농협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도 이날 “농협이 정부 지원금과 함께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 가격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인상 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어 농협·정부 등이 부담해야 할 지원금을 농민에게 전가시켰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비료 가격은 코로나19와 국제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고공 행진 중이다. 이에 2022년부터 농협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30%)·농협(30%)·지방자치단체(20%)가 나눠 지원하고 농가가 나머지 20%를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올해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농가는 지난해보다 더 비싼 금액에 무기질비료를 구매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까지는 2021년 8월 농협 판매가인 1만600원을 기준으로 각 해당 연도의 농협 판매가와외의 인상차액 지원금이 산정됐지만 올해는 2023년 3·4분기 농가 구매가인 1만2천원을 기준으로 농협 판매가와외의 인상차액 지원금이 산정됨에 따라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줄고 농가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문 의원은 “농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농협이 정부의 눈치만 보며 농가의 이익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을 이전으로 되돌려 농가 경영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제헌절 맞은 여야, 서로에 “헌법정신 파괴” 비난전

우원식 의장 “개원식도 채 못 열고 제헌절 맞아 부끄럽다” 與 “민주 의회독재”, 野 “거부권 남발 의회민주주의 훼손”

여야는 17일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한목소리로 헌법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22대 국회 시작부터 이어져온 의사일정 파행과 정치 실종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렸다.

국회의원은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특급 추진 등을 ‘의회 폭

거’로 규정하고, 이를 강하게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법 위에 군림하며 입법폭력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협치와 합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폭주하는 민주당의 폭거는 우리가 만들어온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를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탄핵 정치, 특검 정치를 멈추고 헌법 정신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반면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재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헌법정신 파괴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를 남발했다”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했어야 할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오만한 대통령 앞에 국민 목소리는 철저히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국민과 함께 주권재민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청 로텐더홀에서 5부 요인과 전직 국회의장단 등을 초청한 가운데 제헌절 경축식을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축사에서 2023년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경축식에 앞서 진행된 사전환담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은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5부 요인이 함께한 자리였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 대치에 22대 국회 개원식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최근 정말 부끄러운 것 중의 하나는 너무 같아서 심해서 개원식도 채 못 열고 제헌절을 맞이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



내빈들과 인사하는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76주년 경축식에 입장하며 내빈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 “地選 때 개헌 국민투표하자”

76주년 제헌절 경축사...尹대통령에 공식대화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식 대화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선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 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어떤 경우에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폭우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연기

尹대통령 “피해 복구와 대처에 만전 기해달라”

충남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폭우로 연기됐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충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들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할 예

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중앙정부, 지자체가 모두 현장에서 호우 대처에 진력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실시간으로 전국의 피해 상황을 보고받

고, 각 지자체장에게 현 위치에서 피해 복구와 대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고, 별도의 긴급 지시를 통해 긴급 대응 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김진수 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우라칸 SH-1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우라칸 SH-2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블리스 GOLD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15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스파이럴 숄저 특허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